



해외 양계 푸리

미국

뼈 제거한 닭고기에 트리인산칼슘 허가

미국 농무성 식품안전 검역청은 지난해 말 기계적으로 뼈가 제거된 닭고기에 트리인산칼슘의 사용을 허가했다.

이 첨가물의 허용량은 탈수과정 전 고기중량의 2% 이내이며 탈수과정중 제품의 색상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 허용된다.

이같은 조치는 미국 헨닝센프사가 '88년 탈수된 닭고기가 흙갈색으로 변색되어 그레비스프나 소스 등 가공식품에 사용할 경우 육색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건조제품의 탈색방지를 위해 사용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방글라데시

기후 조건으로 육계 평당 10~20수 사육 권장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남아시아지역은 열대성 기후지역으로 여름의 온도가 평균 36.6°C 를 기록하고 있으며 40.5°C 이상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어 육계사육농가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또한 가축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생산성 향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사육자들은 영양부족과 고온다습한 기후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육밀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어 중체율이 떨어지고 폐사율이 증가하는 등 피해가 심하다.

전문가들은 이런 여건을 고려해 사육자에게 사양관리 요령을 전달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적합한 사육 밀도는 환기가 자동조절되는 계사의 경우 1수당 $500\text{cm}^2 \sim 1,000\text{cm}^2$ 즉 평당 10~20수 사육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험이 많은 한 사육자에 따르면 개방계사에서 평당 4~7수를 사육하였을 경우 성적이 가장 좋았으며 환기가 자동조절되는 계사의 경우에도 사육밀도를 높였을 때 성장속도가 늦고 폐사계 발생률이 높았음을 경험했다.

세계

가공란 소비량 증가 추세

최근 세계 각국의 계란소비량을 보면 식란소비의 감소현상으로 전체적인 소비량이 줄어드는 반면 가공란 소비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IEC 보고에 의하면 캐나다에서는 1인당 소비량이 223개에서 최근 194개로 현저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란 소비는 11개 늘어난 29개로 나타났음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일본에서는 가공란 소비가 전체계란소비의 40%로 마요네즈원료에 주로 사용되어지며 이태리는 36%, 스위스는 29%, 미국은 21%, EU는 14%, 남아메리카는 4%, 인도는 1%로 각각 조사됐다.

파키스탄

1인당 계란 소비량 45개

인도의 Poultry Times지에 의하면 파키스탄의 양계업이 최근 5년동안 사회전반적인 불안에도 불구하고 10~15% 성장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91년에는 수익세 부담, 생산비 증가, 질병 증가 등으로 생산에 차질을 가져왔지만 '93년에는 계란생산량이 5억3천7백만개로 전년에 비해 33% 증가를 보였다.

양계업 활성을 위해 파키스탄에서는 양계업에 대해 수익세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아직 지방 세는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구 1억2천1백만명이 살고 있는 파키스탄의 1인당 계란소비량은 44.51개로 밝혀졌다.

이스라엘

보조금 지원 활성화

이스라엘에서는 농업보조금 제도가 활성화되어 금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보조, 지원되고 있다.

이중 양계분야에도 상당량이 지원되는데 양계산물 생산증가와 안정적인 수출망을 구축하기 위해 쓰여진다.

이스라엘은 종전의 적정생산 퀘터방식에서 농가가 생산가능한 만큼의 퀘터량을 선택, 생산할 수 있게끔 제도화 되었는데, 만약 생산과 임으로 인해 생산비 이하의 가격이 형성, 판매되었을 경우 정부에서는 그 농가에서 목표한 퀘터량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을 해주며 이는 생산조절은 물론 농가들의 사기를 높여주는데 효과를 보고 있다.

헝가리

사육수수 대폭 감소 추세

최근들어 헝가리의 가금사육수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닭고기 생산량은 '92년 41만6천톤으로 '90년에 비해 30% 사육감소세를 보였으며 계란 생산량은 '92년 43억8천4백개로 '88년에 비해 5% 감소로 닭고기 보다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가금사육수수 전체로 볼때 '93년에는 전년에 비해 34%가 감소한 11억8천5백만 수수로 대폭의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양계

닭고기를 많이 먹자